

## 北漢山 國立公園 京畿支部 結成

支部長에 金斗圭 發起委員長 選任.

지난 9월 5일 상오10시 경기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북한산 풀장회의실에서 本會 文莊寅 副會長, 吳判龍 事務局長, 관내기관장 유지, 지부회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경기 지부 창립총회를 가졌다.

全基福 회원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가 있은후 본회 李濤 회장을 대리하여 文莊寅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립공원운동의 필요성과 세계적 움직임, 자연보호의 실태등을 강연 했으며 이날 선출된 金斗圭 支部長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을다른 공원 못지 않게 시민들의 공원 애호와 올바른 이용의 계몽운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 했다. 한편 총회가 끝난후 오찬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金斗圭

△부지부장 : 文奇秀

△운영위원 : 李明煥, 李明浩, 李榮植

△감 사 : 金奉男

△사 무 장 : 全基福



△北漢山경기지부結成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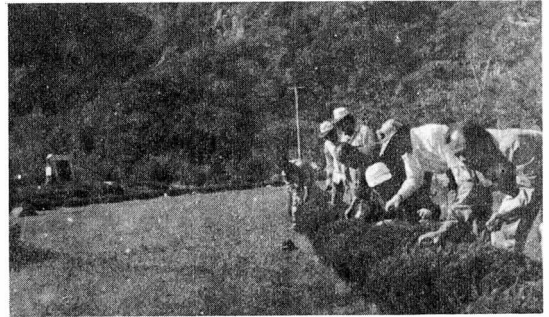
## ▲內藏山 국립공원支部

一案內冊字發刊, 奉仕활동

△지난 10월 1일 협회승인하에 국립공원내장산 案内冊字(자연공원가이드②)를 공원관리사무소

후원과 지부회원들의 협조로 발간, 본협회규 정규격판으로 64페이지. 각도관광협회, 여행사 및 전국유관기관에 1천부무료기증. <10월 8일>

△지부고문 南杜熙씨는 지부회원들과 함께 새벽마다 공원내의 정원수를 손질해 왔는데 단풍시즌을 맞아 5백여그루의 정원수 손질을 끝냈다. <10월14일>



△내장산지부 會員들의 奉仕作業

△鞠采燁지부장은 사재로 집단상가앞로상에 가로수를 심어주는 한편 앰프시설을 기증하고 가로등을 가설·보수.

지난 10월 6일에는 집단상가 사이를 흐르는 西萊교 아래沕가 파괴된것을 사재를 들여 지부회원들의 봉사활동(사진)으로 깨끗이 보수.

鞠지부장은 지난 7월 1일 정주시민의 날에 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10월 5일에는 정주시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으로서 공로가 크다하여 자연보호헌장 8주년을 맞아 정주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음.



集團商街 河川 西萊橋 아래 沕補修

## 內藏山支部서 探訪客에 設問

### 단풍風景감상客이 으뜸차지

本會 內藏山國立公園支部(支部長 鞠采燁)는 利用者의 意見과 趣向등을 참작하기 위해 지난 11月 1日부터 16일동안(休日 3, 平日13) 총 2천 5백여명에게 설문지를 매표소 입구에서 배포하여 설문함에 넣도록 했더니 이중 101명만이 응답했다. 동설문조사는 근소한 응답으로 그쳤으므로 정확한 여론조사라할 수 없으나 이조사에서 집계된 것을 참고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문동기...아름다운 단풍풍경감상 21명, 평소 오고싶었던곳 17명 유명공원이기에 15명 직장동료를 따라서 13명, 단체여행코스 8명, 사진촬영, 사교상, 미지의 자연탐방이 각 4명 동식물관찰 1명.

(2) 연령별...10대(3.9%) 20대(43.5%) 30대(26.8%) 40대(17.8%) 50대(7.9%)

(3) 거주지별...서울(31.6%) 전주(20.9%) 충남(10.9%) 부산(9.9%) 전남(4.9%) 경남(4.9%) 경기·제주(각 1.8%) 대구·인천·충북·강원(각 0.9%)

(4) 직업별...회사원(42.6%) 자유업(21.8%) 상업(12.9%) 공무원(11.9%) 학생(6.9%) 농업(3.9%)

(5) 학력별...고졸(49.5%) 대졸이상(38.6%) 중졸(10.9%)

(6) 소득수준...월평균 30만원이상 40만원미만(29.7%) 20만원이상(24.8%) 불명(12.8%) 50만원이상(11.9%)

(7) 교통편...시내버스·택시(54.4%) 관광버스(25.7%) 자가용자동차(19.8%)

(8) 탐방빈도...1차방문(단풍시즌)(76.2%) 2차(12.8%) 3차(4.9%) 4차(3.9%) 10차(1.99%) 당일코스(36.6%) 숙박이용희망(63.3%)

(9) 이용자 특기사항...① 탐방객안내에 행정

봉사실, 주민들로 구성된 번영회측의 친절 ② 경찰의 친절한 교통안내 ③ 관리사무소 및 시당국의 안내방송등은 유익했다. ④제 4주 제 5주 차장은 거리가 너무 멀다. ⑤ 공원입장료...비싸다 54% 싸다 9.8% 보통이다 36%(註·문화재관람료 포함되어 있음) ⑥ 숙박시설 및 가격...불결하고 비싸다 55.4% 보통이다 35.1% ⑦ 식당시설 및 가격...보통이다 49.2% 불결하고 비싸다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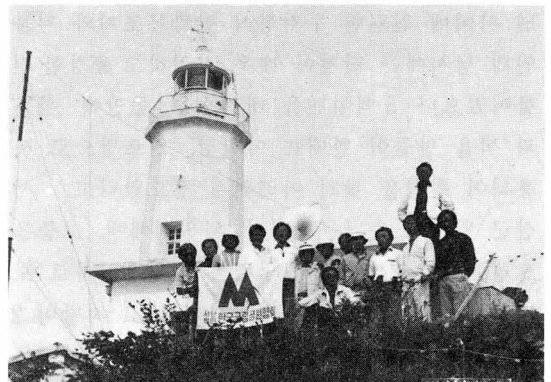
(10) 매표소에서 경내까지 차량운행문제...소음 공해로 인한 자연훼손 및 도보산책에 방해가 된다(58.8%)

(11) 지정토산품전시장상품-특색이 없다(77.3%)

## ▲瑞山海岸국립공원支部

### 瓮島, 燈台직원, 위문품傳達

本회 瑞山해안국립공원지부 咸日成지부장 을 비롯한 13명의 회원들은 지난 10월 5일 고도에서 수고하는 瓮島등대(등대장 박종진·57)를 방문, 등대직원들을 위로한 후 위문품으로 사과 1상자와 음료수 1상자를 전달했다. 회원들은 이날 안흥만을 출발, 약 3시간 동안 해안공원을 시찰한 후 옹도에 도착했으며 옹도등대는 群山지구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西海岸일대를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유일한 등대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옹도등대직원을 위문한 瑞山支部회원들〉

▲鄭漆谷회원 美展주재

지부운영위원이며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장인 鄭칠곡씨는 11월14일~19일까지 瑞山문화원에서 미협서산전시회를 열어 많은 예술동호인과 회원들이 참관했다.

▲公園관리소의 운영애로

서산국립해안공원내의 萬里浦해수욕장 집단시설지구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 공원관리사무소가 9년째 職制도 없이 무리하게 군에 관리업무를 맡기어 애로를 겪고있다. 8월 21일 大田日報의 瑞山발신 기사에 의하면 공원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군공원계는 계장1명 직원 2명뿐으로 3백28.99km<sup>2</sup>의 공원구역관리는 물론 6개소의 집단시설지구와 관리사무소관리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5百年만에 原形대로 복원키로

원형을 잃어가고 있었던 瑞山군 태안읍 소재의 「경이정」이 세워진지 5백86년만에 처음으로 크게 손질되어 원래의 제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한다. 대전일보가 최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곳 태안의 경이정은 조선시대에 안홍향을 통하여 왕래했던 中國의 使臣들이 쉬어갔던 곳일 뿐만아니라 태안의 방어사가 軍事에 관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조선정종때인 1399-1400년 사이에 건립한 누각형식 팔작목조기와 건물인데 당시에는 단청이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으나 5백여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창문과 벽을 만들어 한때는 야학당, 경로당으로 사용되어 원형을 찾기 어려워질 정도였다고. 서산군 당국이 충남문화재전 위원회에 고증을 요청, 현지조사반의 연구결과 11월19일자로 도 지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하게 되고 지방비 2천만원을 들여 원형복원, 기단과 우물, 마루등 옛모습대로 복원케 되었다.

▲濠洲國事務所서 資料보내와 호주국립공원협회와 자료교환키로

본회 호주국사무소장 吳昌煥씨(P.O. BOX 220 BRIGHTON LE SANDS 2216 N.S.W AUS TRALIA)는 지난 11월 8일 호주국 국립공원협회와 자료교환 교섭에 성공하여 처음으로 호주국립공원자료를 보내왔다. 吳소장에 의하면 호주국립공원협회 당국자는 「귀국에도 국립공원협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들었으며 자료교환은 반가운 일이라」하였다 한다.

▲智異山 慶南支部

치발목山莊 개장식

지리산 치발목山莊(해발 1,450m)이 11월 12일 문을 열고 14일 오후 1시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산 53번지에서 각계인사를 초청, 본회 지리산국립공원 慶南지부 徐廷培지부장 주재로 개장식을 가졌다. 건평 70m<sup>2</sup>(침상 2·수용인원 30명)인 이산장은 건물이 남아 수년간 폐쇄 방치해온 것을 본회 徐지부장이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한 것.

산장의 첫 관리자는 경남지부의 신혼부부인 閔丙台회원 부부를 임명했다고 본회에 보고되었다.

●서울山岳聯사무실 移轉

〈北漢山서울특별시지부〉

대한산악연맹 서울특별시 산악연맹(회장 權孝燮=本會 理事·北漢山 국립공원 서울支部長)은 12월 8일 사무실을 종로구 동숭동 1-28 홍사단회관 405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종전 그대로 762-6405·6406.